

5 장-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다

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예수의 잉태 사건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기술한다. 5 장에서는 다음의 질문들을 다룬다.

1.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잉태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는가? 공통점과 다른점은?
2. 왜 마리아가 처녀라는 게 중요했는가?
3. 왜 성령으로 (신적인) 잉태하였는가?

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태고지: 천사가 나타나다

	마태복음	마가복음
어디에서	베들레헴 (후에 나사렛으로 이사)	나사렛 (후에 잠시 베들레헴으로 피신)
누구에게	요셉	마리아
언제	한 밤중, 꿈	낮 시간
특이점	요셉의 관점에서 전개 (요셉의 이름이 강조). 마리아의 간음문제 제기: 파혼 - 계시-재결합의 구조 처녀 수태의 이유-이사야의 예언	마리아의 관점에서 전개 간음 가능성의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음(누가 1:27) 처녀 수태의 이유-세례요한과의 구별

마태의 잉태이야기는 왜 요셉을 강조했을까? 모세에 관한 미드라쉬에서부터 마태의 비유로

-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모세 오경에 대비되는 새로운 오경의 전주곡으로 기록되었다 (예: 예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다섯번의 메시아 칭호, 다섯 번의 꿈과 다섯 번의 성취)
- 왜 마태는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간음을 추정하는가? “성령으로 잉태”, “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” 모세 전통과 연개되는 이야기 전개를 위해 마태가 의도적으로 사전포석을 놓은 것
  - o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성실함과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: 켈수스 [참된 교리에 관해서]는 마리아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고발 (panthera).
- 모세와 예수 사이의 병행법 Moses/Jesus parallelism

미드라쉬 전통 - 모세의 잉태	마태복음 - 예수의 잉태
파라오의 영아학살 명령 유대인들의 반응 : <b>파혼</b> , 부부관계 자제  *유대인 철학자 필로 [성서의 고대] : 아르람은 계시를 받은 뒤 이런 결정을 거부하고 모두 재결합 할 것을 조언 *요세푸스 [유대고대사]: 아르람은 족속 전체가 절멸할 것을 우려하였고, 아내가 임신하여 곤혹스럽게 됨  <b>계시</b> - 하느님이 꿈에 나타남. 예정된 아이가 모세,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재결합  미드라쉬 전승의 촛점: 모세의 아버지 아르람이 계시를 받음 *[타르굼 위요나단] - 파혼과 재결합, 계시는 언급되지 않음 *[회고록들] - 파혼 (아르람이 아내와 별거), 예언 (미리암에게), 재결합(예언 후 아내를 데려옴)	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와 모세의 잉태에 관한 미드라쉬 판본을 연관시켜 기록함  파혼 (1:18-19), 계시 (1:20-23), 재결합 (1:2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파혼: 마리아의 잉태사실을 알고 가만히 굶으려..</li> <li>• 계시: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아기</li> <li>• 재결합: 천사의 말에 순종</li> </ul> 파혼의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 간음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 미드라쉬 패턴이 작동할 수 있게 함. (마태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)  <u>마태에게 예수는 새로운 모세, 예수를 마태보다 더 높이기 위해 사용함</u>

왜 마리아가 처녀라는 게 중요했는가? “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”

- 마태와 누가의 공통 기록 : 마리아는 처녀이며 성령으로 임신, 마태와 누가가 기술한 마리아의 수태고지는 초기의 전승에서 비롯된 것
- 이사야 7:14 의 예언성취를 위해서? 마태복음에는 해당되지만, 누가 복음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.
- 누가의 병행법: 세례요한과 예수 (Jesus/John parallelism)

세례요한- 구약의 상징, 종합, 결론, 완성	예수 - 신약성서의 시작
요한은 나이 많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어머니에게 잉태 수태고지: 천사가 사가라에게. “네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셨다” “이름을 요한이라”	예수는 처녀 어머니에게서 태어남 수태고지: 천사가 마리아에게, “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” “이름을 예수라”
사라와 이삭의 수태고지와 연결	처녀에게서 잉태된 것은 예수를 세례요한보다 높이기 위함

- 모델로서의 마리아;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: 최초의 완전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.

**왜 성령으로 잉태하는가? 신적인 잉태에 대한 해명.**

**유대교 전통에서의 신적인 잉태: 누가복음 배후에 있는 구약성서의 모델은?**

- 초월적으로 미리 예정된 아기가 나이가 많고 불임 상태인 부모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잉태
-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모델 - 아브라함과 사라 (이삭), 엘가나와 한나 (사무엘) (현현/약속/기적의 구조)
- 예수의 잉태는 단지 신적인 잉태 만이 아니라 처녀에 의한 신적인 잉태이다. 처녀성, 불임, 노령의 나이 등은 그 잉태가 신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“입증하는” 방식. 관건은 그 태어날 아이의 운명!

**로마 전통에서의 신적인 잉태:**

- 초월적으로 미리 예정된 아이는 신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 잉태된다.
- [황제들의 생애들]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 (옥타비아누스) - 아티아와 옥타비우스의 아들, 아티아와 아폴로와의 관계로 잉태된 것으로 기술. 아우구스투스의 생애와 성취를 매우 자세하게 기술 한 후에 등장하는 이야기
- 원로원에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시도 (민간전승의 표준), 파라오, 예수탄생이야기에도 등장)
- 그리스의 알렉산더와 로마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잉태이야기

**초기 전승은 왜 처녀성을 강조했을까? 기독교가 예수의 신적인 처녀 잉태를 묘사한 이유**

- 예수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잉태보다 드높이기 위함
- 아폴로는 아티아를 범하였지만,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임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
- 그리스 로마의 신적 잉태 - 남신은 육체적인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인간 어머니는 임신 후 더이상 처녀가 아님.
- 초기전승의 주장 : 마리아는 임신 이전, 임신 중, 이후에도 처녀로 남아 있었다. 마리아의 신적 잉태를 다른 모든 신적인 잉태들보다 위대하게 만들었다.

**계몽주의 이전의 세계에서 잉태란?**

- 매우 신비한 사건, 인간과 신의 상호작용으로 잉태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화적으로 당연
- 티투스 리비우스 [도시의 창설로부터]: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과 스키피오 장군의 신적인 잉태
- 플루타크 [평행적인 생애들]: 그리스인, 로마인, 여신과 왕의 교제에 관한 기술
- 이암블리쿠스 [피타고라스의 생애] : 피타고라스는 므네사르쿠스와 피타이스의 아들이지만 아폴로의 아들로 기술.
- 예수, 아담: 하나님/신의 아들이라고 불림

**결론**

- 신적인 잉태의 의미: 개인의 초월적인 성격과 그가 인간세계에 가져다 준 비범한 선물들을 주장하는 표현방식이다.
- 고대인들이 전해준 강력한 은유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다.
- 우리는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운명에 관하여 질문해야 한다.

**생각 해 보기**

-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. 예수의 탄생을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예수의 복음이 던지는 메세지가 더 강력하게 다가올 수 있다.
- 저자의 질문: 당신이 아이의 운명을 알고 난 뒤 그 운명에 당신의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는가?